

#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업계 “경쟁만 부추기는 꼴” 반발

정부, 추가 사업 논의 본격화  
관광객 편의 제고... 방문 활성화  
면세점 사업자 입장 달라  
수요 일정한데 공급만 늘리는 격

정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에 관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규 출점 여부는 5월 초에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해 면세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 9602억원을 거뒀다. 올 1~2월도 면세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이하 전상법)이 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행되면서 파이공(구대행업자)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란 듯이 예상은 빗나갔고 면세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면세점 매출은 달리기준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원화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했다. 매출액은 15억 3000만달러(1조 7207억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

으로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를 가정하며 면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면세점을 설치한다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관광객이 늘어난 후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지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만 늘리는 것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늘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이공에 의한 것”이라며 “파이공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점포만 늘리는 것은 업계의 과당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각 면세점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등 상위 기업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을 기록한 면세점은 전무하다.

특히 지난해 강남 무역센터점에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영업손실 416억원, 당기순손실 416억원을 기록해 적자폭이 전년도에 비해 커졌다. 이는 모회사인 현대백화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시내면세점 특허에 또 한번 도전할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강남 외에 문을 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입찰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시장이(단체관광객이 없다보니)파이공에 지나치게 의존적일뿐더러 할인이나 프로모션으로 인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밋빛 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규 출점으로 인해 대기업 면세점 사이에서 중소·중견 면세점이 설 자리마저 잃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봄·여름, 트렌디한 초경량 아우터 출시

뉴발란스 '엔트리퍼 워업·아노락 자켓'

뉴발란스는 봄, 여름 시즌을 겨냥해 초경량 아우터 '엔트리퍼(N-TRIPPER) 자켓'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엔트리퍼 자켓은 '트리퍼(Tripper)' 콘셉트로, 여행 및 스포츠 활동 등 야외 활동 시 체온 조절에 최적화된 두께감으로 기획됐다. 더불어 최근 유행하는 에슬레저 트렌드에 부합하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총 2가지 스타일로 선보이며 모두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하다.

'엔트리퍼 초경량 워업 자켓'은 빅로그를 활용한 스포티한 그래픽과 테이핑이 포인트인 흘겹 자켓이다.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경량성이 우수하고, 패커블 기능을 갖춰 일교차가 큰 날씨나 여행, 운동 시에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컬러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실내 자켓용으로도 가볍



뉴발란스 엔트리퍼 자켓. /뉴발란스

게 걸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엔트리퍼 초경량 아노락 자켓'은 뉴트로 감성의 아노락 스타일의 자켓으로, 심플한 레터링과 유니크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핑크와 블랙 2가지 컬러로 선보여 커플룩, 시밀러룩 아이템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 어글리 스니커즈 등과 함께 매치해 클래식한 분위기의 스트리트 패션 또한 완성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에경산업 'AGE 20's' 새 모델로 이나영 발탁

에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투웨니스)는 배우 이나영(사진)을 브랜드의 새 모델로 발탁했다고 8일 밝혔다.

AGE 20's는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My 20's Now'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美)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AGE 20's는 그동안 이나영이 여러 작품을 통해 보여준 꾸준한 자기 관리, 깊이 있는 자신감,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내면의 미(美)가 브랜드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서 기자

## JW홀딩스-그래피 헬스케어 신소재 공동개발

JW가 헬스케어 분야 신소재 개발 사업에 나선다. JW홀딩스는 그래피와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 진출을 위한 '헬스케어 신소재'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피는 3D프린팅 관련 토틸 솔루션 기업으로 자체 원천기술을 활용해 신소재 광경화수지 'S Plastic'과 'Tera Harz'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그래피는 헬스케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소재의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며, JW홀딩스는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자회사와 함께 신규 소재에 대한 인허가, 제품 개발, 마케팅을 추진한다. /박인용 기자

## 셀트리온, '항체+약물' 결합치료제 개발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캐나다 아이프로젠과 맞손

셀트리온은 지난 5일 캐나다 바이오 기업인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ADC 형태의 신약에 대해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아이프로젠에 4종의 ADC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물질을 제공하고 pre-IND(임상 전 규제기관 사전 미팅)와 임상 1상에 필요한 CMC(제품제조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며, 아이프로젠은 제공받은 임상 물질로 임상 1상을 진행하게 된다. 임상 1상 이후에 셀트리온은 ADC 신약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인 우선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령바이오파마-캔서룸

## 비침습 산전검사 '더맘스캐닝 플러스' 론칭

보령바이오파마는 유전자분석 분자진단 전문기업 캔서룸은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인 '더맘스캐닝 플러스'를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

'더맘스캐닝 플러스' 검사는 국내 신생아 유전자 검사 중 최대 규모의 증례를 보유하고 있는 'G스캐닝 검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정한 100여가지의 미세 유전자결실 및 미세 유전자중복 질환의 선별이 가능한 검사이다.

특히 기존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가 10여가지 질환에 대한 선별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선별 질환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는 임신부 혈액 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



아이프로젠이 자체 보유한 ADC 기술인 ADED 플랫폼은 항체-약물을 암 세포로 전달하는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재화가 잘 되지 않는 세포의 수용체의 내재화를 증가시켜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HER-2 발현율이 높은 양성 유방암 환자 뿐만 아니라, HER-2 발현율이 낮은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도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HER-2뿐만 아니라 여타 종양특이항원을 타깃하는 항체에도 응용 가능해 확장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HER2 타깃 관련 유방암 치료제

로는 트라스투주맵이 성분인 셀트리온의 허쥬마를 비롯해 제넨테크의 허셉틴과 퍼투주맵 성분인 제넨테크의 퍼제타 등이 있으며, ADC 형태로는 제넨테크의 캐싸일라가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방암 치료용 항체 의약품들은 모두 HER-2 발현율이 높은 양성 유방암 환자가 타깃이며 글로벌 매출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HER-2 발현율이 낮은 양성 유방암 환자는 발현율이 높은 환자군에 비해 그 비율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향후 30조원을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임상 개발에 따라 HER2를 발현하는 다른 방광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으로도 타깃군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동아쏘시오홀딩스 커뮤니티 '웰컴센터' 오픈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 임직원들을 위한 '웰컴센터'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웰컴센터는 '행복한 회사가 되자'는 콘셉트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임직원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사내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착공한 웰컴센터는 지하 1층 약 162.41㎡(약 49평), 지상 1층 202.47㎡(약 61평), 지상 2층 약 209.8㎡(약 63평) 규모로 지어졌다. /박인용 기자



아 DNA를 추출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긴바늘을 사용하는 기존 양수검사와 달리 임신부의 혈액만 채취하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안전하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산후유전자검사 서비스 'G스캐닝', 산전기형아검사(NIPT) '더맘스캐닝', 임신관련질환 및 암·대사질환 유전적 위험도 예측 검사 '더맘케어' 등 유전체분석 종합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